조선대, 83개 학과서 60여개로 줄인다

고강도 구조조정… 단과대·학과 생존 대응책 마련 부심

조선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초로 20여개 학과를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조선대 서재홍 총장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83개 학과(학부)를 60여개 정도로 줄이는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존 위해 불가피=학령 인구는 오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이 되면 대학 정원보다 크게 부족, 대학마다 정원 미달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대의 적립금은 총 800억원이지만 이중 고정 적립금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은 200억원에 불과한데다 지난 해 123억원을 사용해 재정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매년 경상경비가 오르고, 수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구조조정은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되 미래의 트렌드를 고려해 대학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학과 및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얼마나 줄이나=대학 재정 관련 전문기관의 판단과 대학 구조개혁추진단의 판단을 종합하면 적정한 구조조정은 연간 7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학측은 20개 정도의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과 통폐합 추이에 따라 단과대(현행 14개대)의 숫자도 조절한다는 계산이다. 행정조직 구조조정은 동시에 병행된다. 구조조정안은 확정되더라도 2014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교수와 직원 등을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더라도 자연 감소분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떻게 줄이나=대학은 지난해 10월16일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 4개월 동안 개혁안 확정 작업을 벌였다.

구조개혁 추진단은 재정건전성 분야를 진단하는 4명의 위원, 학문단위 경쟁력(8명), 행정전문성(5명), 비전 및 특성화(1명)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학과에 대한 평가 및 진단에 나섰다.

학과 통폐합의 기준은 재정자립도, 학생충원율, 유지율, 취업률, 교수 연구력 등 5개 지표이다.

학과 단위 통폐합은 전공교육과정이 50%이상 중복된 학과(신규 교원의 중복 채용 방지 및 공간사용의 효율화), 학과평가 결과 5가지 지표 중 3가지 이상 하위평가를 받은 학과, 학과 간 조정을 통해 자체 통합한 학과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하며 입학정원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조선대 구조개혁 추진 과정

2012년 10월 16일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한 추진단(4개 분야 18명) 구성 :재정건전성(4), 학문경쟁력(8), 행정전문성(5), 비전 및 특성화(1)
2013년 1월 9일	구조개혁안 1차 설명회(대상:총장 및 학처장)
1월15일	구조개혁안 2차 설명회(대상:교수평의회 임원 및 대의원)
1월17일	구조개혁안 3차 설명회(대상:총장 및 행정팀장급 이상)
1월23일	구조개혁안 4차 설명회(대상:전 직원)
1월10일~30일	대학원·대학·학과·행정부서 의견수렴
4월말	구조개혁안 확정
5월	구조개혁안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구조개혁 추진단은 이미 전 직원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구조개혁안 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여기에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는 구조개혁에 대비한 대학원·대학·학과·행정부서 등 각 단위별 의견 수렴을 끝냈다.

구조개혁 추진단은 늦어도 오는 4월말까지 구조개혁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5월안에 구조개혁안을 승인받아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과마다 초긴장=구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5개 기준이 학과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은 비상이 걸렸다.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공과대나 경영대는 여유가 있는 반면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학 및 자연과학 계열 학과들은 울상이다. 더욱이 학과 성격상 취업이나 재정건정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예술 관련 학과들은 멘붕 상태에 가깝다.

이들 예술 관련 학과들은 조선대의 위상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조성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소프트 웨어를 담당해야 하는 과제 등을 존속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재홍 총장은 "동문과 시·도민의 조선대에 대한 사랑이 여전한 만큼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민립대학으로서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檢, 장만채 도교육감 추가 기소

순천대 기숙사 운영자에게 3500만원 수수 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장 도교육감이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 도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 2010년 5월 1일 경남 김해에서 박모(여·55)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쓰기위해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순천대에서 학생·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던 박씨는 장 도교육감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건네받고 이 돈을 건넸으나 이후 더 이상 추가로 건넨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교육감은 1년여 뒤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이자와 함께 원금 3500만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공무원 헌혈 광주시 북구청 직원과 공익요원들이 30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겨울철 혈액 공급을 돕기위해 헌혈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주택 화재 하루뒤 60대 남자 숨진채 발견

화재 발생 후 하루가 지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오후 3시 44분께 장성군 황룡면의 한 단층 주택 거실에 김모(65)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주택 주방과 거실 대부분이 그을려 있었고 창문과 방문 등은 닫혀 있었다.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길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발견하지 못해 불이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김씨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여수·목포서 잇따라 자살

30일 오전 10시 40분께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장등해수욕장 내 도로에서 김모(27)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져 있는 것을 친척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 차량 조수석에서 번개탄이 탄 흔적을 발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 35분께에는 목포시 죽교동의 모 호텔 주차장에서 박모(26)씨가 차량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성접대 강요 장자연 편지는 위조"

광주지법, 30대 집유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정한근 판사)는 30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2010년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필적감정 결과, 편지 글씨와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 탄원서의 '거짓', '왜로움', '문론(물론)' 등 잘못된 맞춤법이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립예술단 오늘 파업… 공연 취소 파문

문예회관장 교체

광주시립예술단 노조가 파업에 돌입, 정기 공연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문예회관은 3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시립교향악단 제282회 정기연주회를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파업 돌입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노조와 문예회관은 30일 오후 2시 회관에서 마지막 단협을 진행했지만 ▲예술감독 재위촉 절차 ▲특별휴가일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문예회관은 이미 공연 티켓을 구입한 5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조치를 하고 있지만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됐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체가 파업으로 존립 이유인 공연을 취소함에 따라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술감독 재위촉 등의 문제는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일축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법대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직장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예술감독 재위촉 문제 등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공연 직전까지 공연 파행을 막으려했지만 시가 성급하게 공연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창재 광주문예회관장을 29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했으며, 이자리에 기업지원과 이영민 사무관을 승진 발령했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31일 오전 11시 시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낙지 죽음 거짓말 탐지기 동원?

쌍나팔

○…이웃한 시장 상인끼리 산낙지의 죽음을 둘러싸고 국과수 감식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

○…3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어물전을 하는 A(45)씨가 이웃에서 산낙지를 파는 B(여·45)씨를 자신의 낙지 수족관에 빙초산을 뿌려 6마리를 죽게 했다며 신고해 조사중이라는 것.

○…경찰은 "B씨가 '물을 부었을 뿐'이라며 부인해 감식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할 판"이라고 씁쓸해하는 표정.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